



농식품부·산림청, 남부지역 농업 가뭄 공동 대응

- 밀양시 농업 가뭄 현장에 산불진화차량(22대) 긴급 투입

농림축산식품부(장관 송미령, 이하 ‘농식품부’)와 산림청(청장 박은식)은 가뭄으로 농작물 피해가 우려되는 밀양시에 농업용수 공급대책을 공동으로 추진한다.

최근 2개월간(6.1.~7.31.) 경남지역 강수량은 162mm로 평년(487mm)의 33% 수준에 불과하고, 밀양 소재 저수지의 저수율은 전국 최저 수준(32.6%)을 기록함에 따라 농업인들의 영농 급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. 또한 당분간 남부 지역에 비 소식이 없어 농작물 가뭄 피해 확산이 우려되고 있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.

산림청은 8.5일부터 22대의 산불진화차량을 투입하여 가뭄 피해가 우려되는 밀양시 무안면과 초동면 일대 용수시설이 없는 밭, 말단부 논 약 22ha에 하루 500톤 이상의 농업용수를 공급할 예정이다.

농식품부는 지난 2월 농업용수를 확보하기 위해 예산 80억원을 선제적으로 배정한 바 있으며, 이번 가뭄 상황을 감안하여 21억원을 지방정부에 긴급하게 추가 지원하였다. 지방정부는 이에 지방비를 더하여 가뭄 해갈 시까지 하천 굴착, 양수시설 설치, 급수차 동원 등 단기간 내 농업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책을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.

앞으로도 농식품부는 매일 가뭄 상황을 점검하고, 산림청, 지방정부와 농어촌
공사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업하여 가용 인력·장비·재원을 총동원 하는 등
농작물 가뭄 피해 최소화를 위해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 농업기반과	책임자	과 장	이재천	(044-201-1851)
		담당자	사무관	김수현	(044-201-1863)
	산림청 산림재난통제관 산불방지과	책임자	과 장	금시훈	(042-481-4250)
		담당자	사무관	안우진	(042-481-4257)

